

중대재해, 반드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해야 할 기본조건 -



고양지청장 정언숙

고양과 파주 지역은 경기북부지역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파주에는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고, 출판·인쇄 산업과 제조업, 물류산업이 함께 발전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는 우리나라 첨단 산업 경쟁력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현장의 안전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한 번의 사고로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가족과 동료, 기업과 지역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사고 가운데 상당수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상당수는 추락, 끼임과 같은 기본적인 위험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위험요인이 방치될 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안전을 생활화한다면 중대재해는 반드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고양·과주 지역의 산재 사망사고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고사망자는 2022년 21명에서 2023년 16명, 2024년 11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지역 기업과 노동자, 관계기관의 노력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18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이러한 인식 아래 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든든한 상생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 선도기업의 우수한 안전 인프라와 노하우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도록 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2~3차 협력사, 거래관계 없는 지역 중소기업을 1:1로 연결하여 안전기술 전수를 촉진하고, 지역 선도기업의 안전 교육장을 ‘지역 개방형 안전 교육장’으로 지정하여 소규모기업 노동자들이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건물종합관리업, 물류업종을 3대 특화업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재해사례와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대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체와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은 규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문화가 함께 만들어질 때 비로소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해야 할 기본조건입니다.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앞으로도 기업, 노동자, 지방정부, 안전보건공단, 협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위험격차 없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기업이 안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입니다.

중대재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철저한 예방과 실천이 있다면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현장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끝.